



대비의 미학: 로즈 골드와 블랙으로 새롭게 태어난 CHRONOMASTER ORIGINAL TRIPLE CALENDAR

2025년 4월 24일, 르 로클 - 스타일과 기능성, 탁월한 기술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제니스 CHRONOMASTER Original Triple Calendar Chronograph가 2024년 초 유서 깊은 과거에서 영감을 얻은 컴팩트한 디자인의 CHRONOMASTER 모델로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틸 케이스로 출시되었던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이제 진귀한 메탈 소재로 다시금 새롭게 등장하여 우아한 블랙과 따뜻한 로즈 골드의 조화로운 만남을 선보입니다.

제니스 Triple Calendar Chronograph는 엘 프리메로를 변형한 가장 상징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전설적인 고진동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첫 출시 당시부터 트리플 캘린더와 문페이스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1970년에는 A386의 라운드 케이스 디자인을 활용한 25 피스의 프로토타입 시리즈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기능 조합은 2024년 CHRONOMASTER Original Triple Calendar에 다시 한번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1969 A386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얻어 돌출형 박스 사파이어 크리스탈, 테이퍼드 러그, 펌프 스타일 푸셔를 갖춘 조화로운 비율의 컴팩트한 38mm 케이스로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뛰어난 가독성과 완벽한 균형이 돋보이며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이얼은 풀 캘린더 인디케이션과 3개의 엘 프리메로 레지스터 크로노그래프 레이아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위쪽의 11시와 2시 방향에 대칭적으로 배치된 창에서는 요일 및 월을 표시합니다. 날짜는 기존의 엘 프리메로와 동일하게 4시 30분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페이스는 6시 방향의 크로노그래프 미닛 레지스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등장한 스틸 모델 이후, 정교한 위치메이킹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이 모델은 18캐럿 로즈 골드와 세련된 블랙 다이얼을 조합하여 그야말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로즈 골드와 짙은 블랙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대비 효과는 핸즈를 비롯하여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0.1초 챗터 링, 인덱스가 아름다운 케이스 컬러를 담아낸 다이얼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각면 처리된 마커와 핸즈에는 슈퍼 루미노바 SLN C1을 사용하여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CHRONOMASTER Original Triple Calendar는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3610 칼리버로 구동됩니다. 제니스의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칼리버는 진정한 0.1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챗터 링의 눈금은 0.1초 단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5Hz의 진동수가 지닌 이점을 고스란히 이끌어내며,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핸드는 기존의 60초가 아닌 10초에 한



바퀴씩 다이얼을 회전합니다. 완벽한 캘린더 메커니즘을 갖추었음에도 파워 리저브는 60 시간에 달합니다.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무브먼트의 아키텍처와 더불어 블루 컬럼 휠과 제니스의 시그니처 스타 모티브를 장식한 오픈 로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로즈 골드 소재의 CHRONOMASTER Original Triple Calendar 는 18 캐럿 로즈 골드 폴딩 클래스프를 갖춘 블랙 카프스킨 스트랩이 제공됩니다. 제니스 부티크, 온라인, 전 세계 공식 매장을 통해 만나보세요.

워치메이킹의 심장, 제니스

1865 년 스위스 르 로클에서 설립된 제니스는 끊임없이 개혁 정신과 정밀성을 추구하며 16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선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 및 제조하며 워치메이킹 분야에 지속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969 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성과 뛰어난 고진동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니스의 타임피스들은 혁신과 뛰어난 장인정신을 향한 매뉴팩처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념합니다. CHRONOMASTER 컬렉션은 고정밀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제니스의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강조하고, DEFY 컬렉션은 기술적 혁신과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PILOT 컬렉션은 모험에 함께하는 특별한 시계로서 제니스가 항공 분야에서 쌓아 온 풍부한 유산을 예찬합니다. 정밀성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은 크로노미터 부문에서 기록한 2,333 회의 독보적인 수상 경력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오래도록 이어진 제니스의 탁월한 유산을 한층 강조합니다. 수상 경력의 시작된 대부분을 차지하는 칼리버 135 는 최신 기술 솔루션과 소재를 통합하여 현대적인 구조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제니스는 새롭게 선보이는 G.F.J 컬렉션을 통해 칼리버 135 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국해협을 횡단한 루이 블레리오의 역사적인 비행에서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의 기록적인 성층권 자유낙하에 이르기까지, 제니스 시계는 역사를 통틀어 커다란 꿈을 꾸며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개혁자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이처럼 대담한 정신은 제니스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활약하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제니스는 15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보여 온 탁월함, 혁신,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기념함과 동시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분야의 최전선에 서서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고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1865 년부터 현재까지, 르 로클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제니스는 워치메이킹의 심장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CHRONOMASTER ORIGINAL TRIPLE CALENDAR

레퍼런스: 18.3400.3610/21.C911

핵심 사항: 0.1초까지 측정 및 표시할 수 있는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컴플리트 캘린더(요일, 날짜, 월). 문페이스 인디케이션.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10 오토매틱

진동수: 시간당 36,000회(5 Hz)

파워 리저브: 60시간

기능: 0.1초 크로노그래프 기능. 컴플리트 캘린더(요일, 날짜, 월). 문페이스 디스플레이,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10초에 1회 회전하는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6시 방향에 위치한 60분 카운터, 3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마감: 새틴 마감 처리된 별 모양 로터

가격: 25,400 스위스 프랑 / 27,400 유로 / 26,300 달러

소재: 18캐럿 로즈 골드

방수: 5ATM

케이스: 38mm / **두께:** 14 mm / **러그 간 길이:** 46mm

다이얼: 블랙 다이얼, 로즈 골드 컬러 카운터

아워 마커: 로즈 골드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즈 골드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블랙 카프스킨 가죽 스트랩, 18캐럿 로즈 골드 폴딩 클래스프

